

## 활동 중의 관상

이나시오 성인의 영성을 가장 잘 설명한 나달 신부가 다시 한번 짧은 표현으로 핵심을 짚었다. “‘Contemplativus in Actione’ 즉 행동 중에 관상하는 것이 바로 ‘이나시오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된다. “관상 중에 기도하는 자는 활동적이다.”

활동과 관상을 일치시킨 이 표현은 한편으로는 행동주의가 범람하던 시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관상을 추구하는 시대에 매력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이나시오식의 견해는 여기서 하나의 통합과 두 가지(활동과 관상)를 내적인 일치에로 이끄는 하나의 길을 제공한다.

이나시오 성인이 살던 시대에 활동적인 삶과 관상적인 삶에 대한 것은 두 개의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한 문제였다. ‘세상 안’에서의 삶과 ‘수도원 안’에서의 삶이었다. 그 당시 관상 수도원의 삶의 형태는 대부분 ‘더 높은’, 더 좋은 삶의 형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나시오 성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간은 “우리 주 천주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여 주실 어떠한 신분과 삶에서 완덕을 이룩할”(영신수련 135) 수 있다고 이나시오 성인은 생각한다.

분명히 그에게도 활동과 관상은 구별된다. 이나시오 성인이 누군가를 영신수련에서 관상을 하도록 지도하거나 어느 다른 동료에게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별 또한 이나시오 성인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성인에게 결정적인 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과 끊임없는 결합으로 이끄는 그 마음의 자유이다.

이 영적 진리는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쉽게 체험될 수

있다. 거기서는 한 가지만을 계산한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을 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든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병상을 지키고 있든지, 그들이 내적인 침묵을 지키면서 함께 숲속을 산책하든지, 그들이 서로 다정하게 지내든지, 교육 문제로 서로 승강이를 벌이든지 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까이 있거나 외형상 헤어져 있든지, 중요하고 근본이 되며 꼴을 갖추는 것은 모든 것 안에서 한 가지이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 사랑 안에서 '능동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은 하나이다.

신체적인 것의 한 비유가 삶의 활동적인 차원과 관상적인 차원의 일치를 통찰할 수 있게 해준다. 인간에게는 눈과 손이 있다. 인간은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인간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사는데 두 가지 다 필요하다. 두 가지가 서로 의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어둠 속에서 헤매든지 인간은 자신이 보는 곳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이 비유는 다른 것도 이야기한다. 눈은 손이 잡을 수 있고 발이 디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다다른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파멸만이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봉우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삶은 활동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관상적이다. 인간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본다. 많은 것들을 인간은 보는 것으로 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보는 데 항상 다시 시간을 내야 한다.

보는 것으로부터 행동이 생겨난다. 요한 복음에 이것과 관련된 말이 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할 뿐이다”(5,19). 예수님께서서는 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관상과 활동이 내적인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사신다. 다시 한번 나달 신부의 말을 인용하자.

“우리는 활동적인 삶(vita activa)과 관상적인 삶(contemplativa)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자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더욱 더 높은 활동의 삶’ (vita activa superior)은 행동과 바라봄이 하나가 되는 데에서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인 사랑의 활동입니다. 이는 완성된 행동입니다.”

이 삶의 견해로 ‘마르타와 마리아는 하나’이다. 기도생활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우리의 행동에 ‘영적인 기쁨과 힘’을 주고, “우리의 일은 기도를 성장시키고 그 기도에 힘과 거룩한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영성생활 8

### 현실에 대한 사랑으로

이나시오 영성의 기본 어휘들

지은이/빌리 람베르트

옮긴이/한연희

감수/박병준 · 이규성

초판 발행/1998년 3월 5일

기획/이나시오 영성연구소

편집인/김정웅

편집디자인/전재홍

펴낸이/최인부

펴낸데/도서출판 빅벨

143-220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648-18

등록 1980년 4월 28일 제2-344호

보급처/이나시오 영성연구소

121-742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1-1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306호

E-mail/inigo@ccs.sogang.ac.kr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inigo

☎(02)705-8230/8666 Fax.(02)706-3869

가격/6,500원

ISBN 89-85528-21-1 03230